

“목포~순천 열차 운행 중단 안된다” 반발

(경전선 무궁화호)

코레일 적자 이유로 다음달 24일부터 운행 구간 축소

“영호남 교류·회합의 상징 단절” 목포시민 철회 요구

목포~부산 간 경전선 구간을 단축하려는 코레일의 계획에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이 적자를 이유로 목포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경전선 무궁화호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하자 목포시와 지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은 다음달 24일부터 목포역과 부산 부전역을 연결하는 경전선 무궁화호 열차 운행 구간을 부산 부전~순천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목포역~송정역~순천역~부전역을 잇는 구간 중 목포~순천을 운행하는 노선이 폐쇄되고, 순천과 부산 부전 구

간만 운행하게 된다.

이용객이 적고 적자 노선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적다는 게 중단 이유다. 더욱이 코레일은 지난 2010년 목포~부산 간 하루 4회 왕복 운행하던 노선의 폐지를 추진하다 지역민의 반발로 1회 왕복 편성만 남겨 놓았다.

이에 대해 시는 “국가적으로 경전선은 호남과 영남을 잇는 중요 교통망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영호남회합은 물론 전남 동서부권을 연결해왔다”면서 “목포뿐 아니라 남해안 및 영남 지역과 원활히 교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철도공사가 지역민들의 의사

■ 경전선 노선도



는 배제한 채 수익논리로만 접근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번 조치를 밀어붙인다면 철도 산업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성이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경전선은 경제논리보다 영호남의 회합과 국가의 균형발전, 국민의 이동권 보장 등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노선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관계 부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목포~부산 간 마지막 남은 열차마저 폐지한다는 것은 남해안 철도 교통망의 중단이자, 지역균형 발전과 영호남 교류와 회합의 영원한 단절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전북 소식

“순창 작은 목욕탕서 피곤 푸세요”

쌍치면에 두번째 개장

순창군이 10개 면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조성, 군민들의 ‘삶의 질’ 높이기에 나섰다.

순창군은 지난 19일 쌍치면 작은 목욕탕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 개장에 들어갔다. 쌍치 작은 목욕탕은 동계에 이어 순창에서 두 번째로 개장하는 목욕탕이다. 총사업비 2억8000만원이 투입된 쌍치면 작은 목욕탕은 냉·온탕과 샤워실, 사우나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주 3일 운영된다.

황숙주 군수는 “작은 목욕탕 준공으로 이제 원거리에 위치한 순창읍까지 가

지 않아도 대충탕에서 목욕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작은 목욕탕이 올 겨울 쌍치면 주민들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지역의 사랑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작은 목욕탕 사업은 지역특성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10개 면에서 추진 중인 작은 목욕탕 사업을 기한내 마무리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금과, 인계, 적성, 유등 작은 목욕탕을 연말까지 개장할 계획이며 북흥, 구림, 풍산, 팔덕면은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시 ‘정부 3.0’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시가 올 한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라북도 평가에서 전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 시·도에서 추천된 3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정행정부의 최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민·관·학 협업으로 ▲학교 급식 공급센터 운영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 제공 ▲취약세대 밀집지역 개인맞춤형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했다.

주요 성과로는 시민의 자유로운 정책

제안 창구인 ‘희망등대 정책토론회’를 구성해 시민 참여확대 및 소통채널을 다 양화하고, 현안관련 시민 홍보와 온·오프라인 토론회 참여 등 시민의 정책제안 창구마련에 힘썼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윈윈투 지원 시스템인 ‘기업 지원센터’를 지난 9월 개소하고, 기업과

의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민·관·학 협업으로 ▲학교 급식 공급센터 운영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 제공 ▲취약세대 밀집지역 개인맞춤형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했다. /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여수서 인구정책 워크숍 전국 공무원 400명 참석

전남도는 24일부터 이틀간 여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2014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14년 합계출산율 1위인 전남을 개최지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구정책에 관한 특강과 지자체 인구 대응정책 현장 사례 발표, 지역문화 탐방, 지자체별 저출산 대응 퍼포먼스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저출산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인구가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출산율이 높거나 낮은 4개 시·도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실천 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 간 정책을 공유하면서 향후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다.

이날 여수시에서는 24일 열린 개회식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각 부문에서 그동안 정책을 펴왔지만,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다”며 “실현될까 할 정도로 대담하고 파격적인 시책이 나오지 않으면 저출산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워크숍이 좋은 대안을 만드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강진·영암·장흥 농산물 서울서 인기몰이

서울시 주부들이 지난 20~21일 서울시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열린 ‘한마음 2·5·4(이날 오셔서 사세요) 농부장터’를 찾아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강진군과 영암, 장흥군은 지역상생을 위해 이번 직거래장터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서울시 주부들이 지난 20~21일 서울시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열린 ‘한마음 2·5·4(이날 오셔서 사세요) 농부장터’를 찾아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강진군과 영암, 장흥군은 지역상생을 위해 이번 직거래장터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강진군 제공>

전남도 ‘제2 장성 요양병원’ 방지 연찬회 개최

의료 공무원 등 200명 참석

법인 설립 기준 강화 교육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의료법인인 기존재산 출연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한 전남도가 의료법인 임원 및 담당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나눈다. 연찬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에는 경찰, 변호사, 세무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강연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4일 오후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의료법인 임원 및 담당자,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개정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설명하고, 의료서비스 개선과 관련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연찬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최근 의료법인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설립 당시부터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고시한 바 있다.

이 개정 기준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출연금을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고, 출연한 재산(부동산)의 부채 인정액을 40%에서 채권최고액 기준 40%로 조정했

다. 기본재산처분 기준도 재산의 70%에서 채권최고액 기준 70%로 조정하는 등 의료법인의 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46개 의료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과 행정업무 담당자, 의료법인 관련 행정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또 정부의 의료법인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의료법인행 사무장병원 수사사례(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법인 관련 법규(변호사), 의료법인 회계관리(세무사) 등과 관련 전문가 강연도 이어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읍경찰 경무업무 평가 전북 1위

정읍경찰이 전북지방경찰청 주관의 경무 업무 종합평가와 홍보활동평가, 전회전절도 평가에서 도내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24일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에 따르면 2014년도 경무업무 종합평가 분야에서 눈높이 공감지안 정착, 공정·합리 임원과 행정업무 담당자, 의료법인 관련 행정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또 정부의 의료법인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의료법인행 사무장병원 수사사례(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법인 관련 법규(변호사), 의료법인 회계관리(세무사) 등과 관련 전문가 강연도 이어졌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로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된 치안정책 홍보 및 눈높이 치안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2014년도 경찰서 홍보 활동 평가에서도 도내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정읍경찰은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요 명사특강’을 비롯해 ▲시민공감 수범사례 현장 경찰관 찾아가는 즉상수여식 ▲출근하고 싶은 정읍경찰 행복한 직장생활 자정운동 등 각종 시책을 추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봉 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정읍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층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

전원주택/상가/무인텔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된 혁신도시 인근 전망최상 매4억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자주 임야) 20,495 임대수익약 3억7천만
-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감정원 감정가 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 매매가액 상향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68-5151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3억 6천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